

#답사 겸 #여행

안녕하세요, 에너지 프런티어 2기 대외활동 현장답사 갔다왔어요!

작년에 휴학하고 계획한 여행 하나도 못 가고, 가족끼리 캠핑 한 번 다녀온게 다인데 이렇게 여행을 갈 줄 몰랐네요. 맨날 줌으로 보던 팀원들 만나서 기차 타기 전에도 못 보고 출발했고 목포역 도착해서 처음 봤는데 몇 번 길 잃고 밥도 같이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금방 친해졌어요.

첫번째 일정은 해남신문 이창섭 기자님 만나기

미리 질문 리스트도 보내놓고 기자님 기사도 읽고 갔어서, 기자님이 주시는 자료 보면서 강의 듣듯이 쪽 들었어요. 나중에 이때 정말 잘 갔다고 느끼게 되게, 마을 주민과 사업자에 관한 전반적 상황과 마을 분위기를 알려주셔서 다음 인터뷰에서 이해관계자와 훨씬 이야기가 수월했어요. 아마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인터뷰하다가 조금 무례한 질문도 하거나 대화가 잘 안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해남 문내면 아자수

기자님 인터뷰를 마친 뒤, 다음날 있을 대책위원회 주민을 만날 문내면으로 이동했어요. 다음날 마을도 둘러볼 계획으로 문내면에 숙소를 잡았는데 근처에 바다도 갔다가 숙소에서 첫째날 보고를 했어요. 이날은 당진팀 마지막 답사날이기도 해서 다들 집에 도착하실 시간에 좀 늦게 회의를 했어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집에 가서도 해남팀에 대한 고민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해남 문내면 앞바다



우수영 문화마을

다음날은 3시경 대책위원회 인터뷰가 있어서 오전 시간이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을 만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모두 문이 닫혀있어서 길거리에서 몇몇분만 마주치고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선 '정재카페'라는 곳으로 가 아침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인터뷰를 잡기 위해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재카페 식당

이곳에서 칼국수를 판다는 내용을 검색해서 방문했는데, 팔칼국수만 판매하고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팔칼국수를 먹었어요.



팔칼국수

원래 팔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김치 조금에 팔칼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셨는데, "마을엔 왜 왔냐"고 물어보셔서 간척지 태양광 발전이야기를 하다가 마을 이장님이 주민에게 찬성 반대를 물어보러 어제도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장님은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 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사장님도 이장님 의견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커피를 마시다가 만난 다든 주민은 찬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저것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다고 불러주시겠다고 하셔서 얼떨결에 인터뷰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대책위원회 이장님과 주민이 왜 현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인터뷰를 2~3시간 가량 하고 카페로 돌아오니 4시정도였고 거기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또다든 이장님을 만났어요.



경제카페

가방을 무겁게 들고다니는게 안쓰러우셨는지 사장님께서 "카페에 가방을 두고 가"라고 하셔서 두고 나왔는데, 학생들이 왔다는 소식에 밥을 먹다가 카페로 오신 이장님께서 그걸 두고 가실 수 없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게 인터뷰를 했던 주민 3명 중 2명이 이장님이셨는데, 이야기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말할 때에도 이런 소개를 하는게 오히려 이야기를 딱딱하게 만들기도 해서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들든 가게에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이학식당 생선구이

다음날은 해남군청 근처에 있는 해남희망에너지 법인을 방문해 발전소 사업자의 입장을 듣고자 택시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고

전날과 다른 숙소를 이용했어요. 다들 오랜 인터뷰로 지쳐서 전날처럼 백반이 나오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이동 중에 틈틈이 찾아서 갔는데, 맛있는 밥집을 잘 찾았다고 친구들에게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ㅎㅎ

다음날 아침 팀원 한 명과 해남희망에너지(주)를 방문했지만, 인터뷰는 거절받았습니다ㅠㅠ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사업의 찬성측 의견은 하나도 듣지 못해서 속이 쓰렸어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우선 수강신청을 끝내고 짐을 챙겨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솔라시도 발전소 소장님과 연락을 했는데,
 해남 산이면에 위치해서 해남의 거의 북서쪽 끝에 있어 해남 택시기사님이 잘 모르셨어요.
 외진 곳이라 길도 험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했더니 먼거리를 이동 중 팀원들 모두 멀미를 심하게 해서 솔라시도에도
 착했을 땐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ㅜㅜㅜ



솔라시도 사무실

도착한 사무실은 발전소 현장 바로 옆에 있었고, 대중교통으로는 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들어가니 작은 회의실로 안내해주셔서 조금은 삭막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로 인터뷰를 요청드렸는지 설명드리고, 질문을 드리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조사를 많이했다고 놀라
 시며 대답해주셔서 답사 전 끊임없이 조별 회의하고 데스크 리서치를 한 보람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아는 내용을 입 밖으로 내뱉으니 '한 달 사이에 아는 것도 많이 늘어서 이렇게 전문적인 대화도 가능
 하다니 우리 진짜 고생했다!'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뿌듯했어요. ㅎㅎ
 정보 보안상 문제로 블로그에 많은 내용을 적을 수는 없지만 해남 안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인 만큼 문내면 사
 업에 관한 이야기로도 참고할 점이 많았고, 찬성측 의견을 듣지 못했던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이 솔라시도가 내연기관차가 들어올 수 없게 운영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엔 전기차를 타고
 와야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솔라시도 태양정원 위에서 본 풍경

옆에 사진은 소장님이 찍으셨다는 사진을 전달받은 것인데,
 원모양 공원의 지름이 300m에 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는 바깥에서 원으로 들어가는데 1km보다 길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차를 타고 지나며 본 태양광 설비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드론으로 촬영한 솔라시도 태양 정원

일반 설비와 영농형 태양광 설비는 위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고 땅에서 보면 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패널이 땅에서 높게 올려져 있었고, 현재 마을 주민 대상으로 이곳에서 수경재배 농사나 염분이 있는 간척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농사지을 수 있게 부지를 제공하고 사무실 옆 창고도 빌려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형 태양광 발전 설비 (영농형은 지지대의 높이가 더 높다)



열차 시간 기다리면서 완전 지쳐버린 모습

마무리로 목포역 근처에서 srt를 기다리며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날 인터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치긴 했지만, 현장에서 감동받고 뿌듯했던 감정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준비 기간과 2박 3일 현장 답사였어요.

- 계획과 우연이 모여 행복했던 답사일기 끝! -